셀트리온, 송도 3공장 본격 가동 25만 l 바이오의약품 상업 생산

7500 l 배양기 총 8개 배치
자동화 등 최신기술 총 집약
고역가 제품 생산… 경제성 극대화

셀트리온 인천 송도 공장 전경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인천 송도에 위치한 제3공장을 본격 가동하며 25만리터 생산 시대를 연다.

셀트리온은 3공장의 주요 장비 생산공정의 완전성을 입증하는 성능 적격성 평가(PQ) 등 과정을 마치고 원료의약품(DS)의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7개월간 약 27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약 2만2300㎡(약 6760평), 지상 5층 규모의 제3공장을 준공했다. 3공장은 총 6만리터 규모로, 셀트리온은 10만리터 규모의 제1공장과 9만리터 규모의 제2공장을 더해 총 25만리터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됐다.

3공장은 변화하는 바이오의약품 트랜드에 발맞춰 의약품 수요를 예측하고 시장 변화와 요구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 '다품종 소량생산'에 초점을 맞췄다. 또 같은 양의 배양액에서도 더 많은 바이오의약품을 만들 수 있도록 효율을 높이는 고역가(High titer) 제품 생산으로 경제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에 3공장의 실제 생산량이나 매출 기여도는 기존 생산시설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보여줄 전망이다.

이를 위해 3공장은 7500리터 배양기 총 8개를 배치하고, 세포 증식 단계를 단축하는 신규 배양 공정 설비와 자동화 기술 확대 등 최신 기술을 집약했다. 오염에 취약한 구역을 클린룸으로 구성하는 것은 물론, 정제 과정에는 고농축 희석 방식을 적용하고 배관·탱크 크기 등을 최적화했다.

3공장이 본격적인 상업생산 단계에 접어들면서 셀트리온이 현재 해외 주요국에서 허가를 획득하고 있는 신규 바이오시밀러와 후속 파이프라인도 생산에 탄력을 받게 됐다. 셀트리온은 1, 2공장에서 기존 제품의 상업생산을 지속하고, 3공장에서 기존 제품과 개발 중인 신제품 생산을 더불어 진행하며 가동률을 높이고 기존 시설과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대상, 醬 문화 지킨다… '전통 잇-다' 다큐 공개

'모수 서울' 오너 셰프 안성재씨 참여
순창 고추장 장인들의 이야기 소개

대상 '청정원 순창'이 '한국의 장(醬)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며 다큐멘터리 '전통 잇-다 : 전인생 통으로 잇다'를 공개했다.

지난 4일,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되면서 해외에서 우리 전통 장 문화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국내 대표 장류 브랜드 '청정원 순창'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은 유네스코 등재 이전부터 한국의 전통 장 담그기 문화를 지키기 위해 힘써왔다.

실제로 전통적인 항아리 제조방식을 응용한 발효 숙성공법인 '항아리원리 신(新)발효공법'을 개발해 전통 장 담그기 방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전통 장류와 장인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응원을 위해 순창군 및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이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순창 고추장의 전통적 가치 조명을 위해 '전통 잇-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콘텐츠를 제작했다. 지난 1989년부터 국내 장류 시장을 선도해 온 '청정원 순창' 브랜드의 입지를 한번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순창 지역에서 맥을 이어온 고추장 장인 4인의 삶과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해 담아냈다. 국내 유일 미쉐린 가이드 3스타를 획득한 '모수 서울'의 오너 셰프 안성재 씨가 참여해 장인들의 고추장에 대한 열정과 진솔한 이야기를 생생히 전하게 된다.

안성재 셰프는 평소 한국 전통 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다큐멘터리 참여를 통해 장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다큐멘터리 '전통 잇-다'는 안성재 셰프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순창 고추장의 가치를 이어온 4명의 장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대를 이어 내려온 정통 방식 그대로를 고집해 온 '고은주 장인'의 '정통을 잇다' 이야기를 시작으로, 변화에 발맞춰 현대적 방식을 접목한 '조종현 장인'의 '현대를 잇다' 이야기, 장 담그기 체험 등을 통해 장 문화 대중화와 홍보에 힘써 온 '서영순 장인'의 '널리 알려 잇다', 고추장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설동순 장인'의 '멈춘 잇다' 이야기가 차례로 펼쳐진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엔씨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90% 승인

500여명 직원 사표 전망

엔씨소프트가 실적 부진을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한 가운데, 500여 명의 직원들이 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희망퇴직 신청자 500여명 가운데 90% 이상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달 내로 퇴사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엔씨의 전체 직원 수는 지난 6월 기준 4886명(기간제 근로자 124명 포함)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게임 개발 조직과 비개발 직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근속 연수에 따라 최소 20개월에서 최대 30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조건이 제시됐다. 이 같은 조건에 따라 약 500명이 퇴직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인사고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직원들과 분사 예정인 조직의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 분사된 엔씨큐에이(NCQA)와 엔씨아이디에스(NCIDS)로 360명이 이동했고 최근 신설하기로 결정한 ▲퍼스트스파크게임즈 ▲빅파이어게임즈 ▲루디우스게임즈 ▲엔씨AI 등 4개 자회사로 700여명이 이동할 예정이다.

그간 엔씨는 오랜 기간 주 수익원이었던 '리니지' 시리즈의 매출 감소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엔씨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30.8%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75.4% 급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SK바이오팜, 커머셜 본부 신설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SK바이오팜은 '2025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는 격변하는 시장 환경 및 제약·바이오 업계 발전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5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우선 SK바이오팜은 차세대 신약 파이프라인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기존 모달리티 분야별로 나뉘어 있던 연구개발 조직을 개편한다. 연구개발(R&D) 전략, 기술 소싱 및 분석, 내부 과제 인큐베이션, 전임상 등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중심 조직으로 강화된다.

SK바이오팜은 이를 통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K바이오팜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커머셜 본부를 신설해 판매와 유통 전반을 일원화한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엑스코프리의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K바이오팜은 조형래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사진**)을 새롭게 선임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SK케미칼, 박현선 파마사업 대표 선임

제약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기대

SK케미칼은 박현선 파마기획실장(**사진**)을 SK케미칼 제약 사업인 '파마 사업'의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SK케미칼에 따르면 박현선 신임 대표는 약학 전공자로 마케팅·개발·전략 등 업무를 두루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케미칼에서 파마기획실장을 역임하며 제약·바이오 사업에 대한 깊은 식견과 전문성을 쌓아 왔다.

SK케미칼은 박현선 신임 대표가 기존에 주력해 온 제약·바이오 분야 사업을 고도화하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등 SK케미칼 제약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케미칼은 그린 케마칼 사업에서는 윤원재 용도개발실장을 신규 임원으로 선임했다.

/이청하 기자

LG생건, 아마존 블프 역대 최고실적

'미감수' 제품군 성장 견인

LG생활건강은 지난 11월 21일~12월 1일 북미 최대 e커머스 아마존에서 열린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서 역대 최고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매출액은 지난 2023년 같은 행사 대비 156% 증가했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의 성장세가 148%로 가장 가팔랐다. 특히 미감수 클렌징폼은 전체 세안제품 판매 순위에서 7위를 기록했다. 미감수 클렌징오일은 메이크업 제거용 오일 부문 3위, 미감수 듀오 세트는 스킨케어 세트 부문 3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LG생활건강은 '빌리프'의 성장세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눈가 관리용 신제품인 '아쿠아 밤 아이 젤'이 눈 스킨케어 부문 4위를 차지하며 빌리프 브랜드 성장률을 116%로 끌어올렸다.

올해 처음으로 아마존 블랙프라이데이에 참여한 고급 구강관리 브랜드 '유시몰'은 치약 부문에서 국내 오랄케어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이청하 기자

JW중외제약, 인지력 개선 건기식 선봬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 출시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 /JW중외제약

JW중외제약은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은 두뇌 건강 기능성 원료인 '포스파티딜세린'을 하루 권장 섭취량 300㎎ 함유한다.

특히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대두에서 추출한 순도 70% 이상의 포스파티딜세린을 사용해 안전성과 품질을 높였다.

또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은 뼈의 형성과 유지를 돕고,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D 10㎍,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유해 산소로부터 보호하는 비타민 E 11㎎도 포함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